

금주법구
 상불이 언제나 나에게 묻지 마오
 지옥이란 두 글자 영원히 없어지고
 가없는 중생들이 모두 다 상불하면
 그때를 기다려서 승은 뜻 말하리라.
 -대예참예문-

현대불교

통사하는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실상선원
 02) 745-8503
 011) 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041) 734-2680
 대전 남산신안산면 수정리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현직 주지 '문중 파문'

동산대중사 입적(1965년 이후 36년만에 처음으로 법랍 40년 이상인 직계제자 지유, 능가, 지혜, 대정, 지현, 양익, 백운, 일미, 정관, 계천 스님 등 21명의 원로스님들이 22일 범어사에서 모임을 가졌다. 3시간에 걸쳐 의견교환에 들어간 원로스님들은 "은사스님이신 동산스님의 뜻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범어사의 명예를 실

의결했다. 원로스님들의 이번 결정에 대해 현 범어사 종무협의회 의장인 홍교스님은 어른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으나 종현·종법상 산중총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현 주지 성오스님과 집행부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원로스님들은 "이날 모임은 어차피 초법적인 것이다. 종법과 관계없이 범어문중의 고승이었던 동산스님의 뜻을 잇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며 "현 범어사 문중은 문중의 위계질서와 수행정신 부재에서 비롯된 만큼 동산대중사 상좌회 추시기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은 모두의 책임이며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범어사 운영위원회, 산중총회, 종무협의회를 일시 정지시키고 현 주지 성오스님의 문중파문을 결의했다.

또 원로스님들은 대본산인 범어사의 살림살이를 투명하고 참신하게 공론을 모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의 모든 사태해결의 결정권을 갖는 '동산대중사 상좌회(대표 능가)'를 구성하고, 범어사 후임 주지로 대성스님(은하사 주지) 추대를 만장일치로

가 위계질서 확립을 위한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동산대중사 1대 제자들인 원로스님들이 모여 이 같이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최근 문화재보수비 횡령 문제로 재무국장 석호스님이 구속되는 등 범어사가 도덕적인 상처를 입은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스님자들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70-80세의 노스님들이 직접 나서 '범어사의 수행가풍 되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천미희(부산 주재기자)



범어사 원로스님들이 22일 모임을 갖고 수행가풍 되살리기에 나섰다.

이제는 복지불사

- ① 교구 본사 앞장선다
- ② 지역복지 성공사례
- ③ '1교구 1법인' 만들자

불교가 이제 받는 종교에서 배푸는 종교로 변하고 있다. 그간 대형 불사 등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해 온 지역의 중심 사찰들이 8화중생(下化衆生)을 위한 복지불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조계종 제1교구본사 조계사가 서울노인종합복지센터, 제16교구 고운사와 영주봉화사법원이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제11교구 불국사가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등 조계종 교구본사들이 97년 IMF관리체제 이후 활발한 사회복지사업에 나서고 있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중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본사는 모두

신흥사 8개 복지시설 운영 '모범'

노인·장애인·아동·부랑인에 관심
 불교사회복지법 제정 우선 과제

18개. 이중 통도사(통도사자비원 신흥사(신흥사복지원) 동화사(불교사회복지회) 금산사(금산사복지원) 관음사(불교자비원) 마곡사(사회복지법인 백산) 송광사(늘기큰마을) 범어사(사회복지법인 범어사) 등 8개 본사는 부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부랑인 분야 등 다양한 지역 사회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97년 '신흥사 복지원'을 설립한 신흥사는 속초 구로 본동 종합사회복지관과 재현장애인복지관, 전주 스포피아, 반야노인요양원, 2개의 어린이집 등 무려 8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91년 통도사자비원을 설립한 통도사 역시 공창·중리 종합사회복지관과 경남도 학생기숙사, 부산보현의집, 3개의 어린이집 등 7개의 시설을 운영 중이다. 또한 고운사와 쌍계사는 사암연합회와 분당사연합회 차원에서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하동청소년수련원을 각각 위탁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자연학원을 위탁운영 중인 월정사는 각 말사에 '1사찰 1유치원'을 구호로 교구내에 10개의 사찰 부설 유치원을 설립, 새파포교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회복지재단 최종한 부장은 "최근 4-5년간 교구본사의 활발한 복지불사는 종단의 전통적인 지원과 재단의 전문적인 지도에 힘입은 것으로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교사회복

조계종 교구본사 운영 주요 복지시설

본사	운영시설 (어린이집 제외)
조계사	서울노인종합복지센터
신흥사	속초·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반야노인요양원, 전주 스포피아, 재현장애인종합복지관
동화사	강원도 자연학원, 월정사부설 유치원 등
마곡사	늘기큰마을
관음사	금산·오전 종합사회복지관, 산주 남일사회복지관
동화사	보리수마을 강현(이흥은 사설), 대구 남우종합사회복지관, 재해·민생의집
관음사	경산 백산사회복지관
불국사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불국유치원
쌍계사	하동청소년수련원
범어사	신명마을
통도사	경상남도 학생기숙사, 공창·중리 종합사회복지관
고운사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월정사	대전 서우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일자리 사업소, 경로사랑
해인사	여주 문수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송광사	무성·송광 종합사회복지관
대흥사	해남 유스호스텔
승주사	처우 일요회·요양원
법안사	주원 인형경로당

지사업은 '1교구 1법인, 1사찰 1시설'이란 구호아래 교구본사와 지역 사찰에 의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불교사회복지법' 제정을 포함한 '불교사회복지법' 기정 제정과 함께 단위 사찰의 복지사업과 연계하는 교구본사 중심의 복지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경 기자 gkim@buddhapa.com

"해인사 대불 '토론의 장' 열자"

교계 14개 단체 제안 "화합승가 구현"

해인사 대불 조성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21일 교계 18개 단체와 중앙신도회 산하 26개 교구 교구신도회가 대불조성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중 14개 단체들은 청동대불을 비롯한 대형불사문화에 대해 불교적 관점을 수립할 '사부대중 토론회' 개최를 조계종단에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해인사 청동대불 조성 논란을 계기로 대형불사에 대한 환경 생태적 불사문화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계단체들은 또 18일 해인사 선방 수좌들이 안거기간에 산문을 벗어나 실상사의 수경스님 처소를 파손한 행태는 출가수행자의 위외와 화합승가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규정하고 당사자들의 참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실상사도 해인사 선방 수좌스님들의 소동과 관련해 20일 해인사를 방문 △방장스님 유갑표 명 △선원장 사과 △주동자스님 3년간 해인사 신문출입 금지 △가담자 28명 명단 공개 및 실상사 방문합회를 요구했다.



원택스님과 김명자 환경부장관 등이 황조룡이를 삼각산에 풀어주고 있다.

"불사 예정대로 추진"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
 청동대불 조성 관련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사진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세민스님은 21일 기자회견에서 "해인사 불사는 대불이 아니라 수련원을 짓는 것이 주목적이며 신도중심의 포교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불 조성도 그 일환일 뿐 불사는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대불 조성은 자운 성철 큰스님들의 뜻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수좌 스님들의 실상사 소동과 관련하여 "해인사와 실상사는 이웃 사촌이다. 싸움 일이 없다"며 "도반 스님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금명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며, 수좌들도 안거 중에 선방을 나간 이유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i@buddhapa.com

"다시 자연 품으로"

조계종-환경부 방생법회
 황조룡이 등 조류 풀어줘
 조계종 총무원과 환경부는 20일 서울 삼각산 도선사에서 자연과 생명 살리기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천연기념물 323호인 황조룡이 등 야생조류를 방생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과 사회부장 양산스님, 문화부장 해지스님, 도선사 주지 광복스님, 조계사 주지 지흥스님, 김명자 환경부장관, 김세욱 국립공

원관리공단이사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법어와 김명자 장관의 축사, 방생, 발원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원택스님과 김 장관 등 주요 참석자들은 황조룡이 17마리, 솔부엉이(천연기념물 324호) 3마리, 멧비둘기 1마리 등 모두 21마리의 야생조류를 삼각산에 풀어주었다. 이날 풀어준 황조룡이 등은 부상을 입은 채 생포된 새들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치료를 받아 야생방사해도 생존이 가능하다. 조계종은 환경위원회에서 제작하는 방생지침서를 7월중 전국 사찰에 배포하고, 지향대로 방생법회를 봉행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장군 족비

- ◇도난 문화재 은닉 및 보관 행위 발견 때부터 공소시효 적용. 모두를 위한 보물이 개인의 치부 수단이 되어서 안 된다. (2면)
- ◇3년째 명동서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 거리 모금하는 정토청년회. 사비를 정토로 가꾸는 아름다운 청년들. (6면)
- ◇여름이 기다려지는 사람들. 해운대도 경포대도 싫다.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山寺로 간다. (7면)
- ◇중국서 북한 난민 지원하면 좋은벗들 활동가 4명 간첩혐의로 가혹행위 당한 뒤 추방. 이웃 사랑도 간첩행위가 되는 기막힌 세상. (23면)

7월 지역불교 문화기행 (社告) 18면 해인사 선각 스님 반론문 8면

가야산 범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 정신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종량 3,300관